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27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 매일미사 책 59쪽 참조.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합

- 일시: 10/15(주일), 교중미사 후.

■ 10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10/21(토) 오전11:30.

■ 구역장, 반장 반모임

- 일시: 10/22(주일) 오전11:30.

■ 홀리 트리니티 본당의 스톤채플 이용

- 일정: 10/13(금) 오후 1:00-5:00

10/14(토) 오후 1:00-5:00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한가위미사 스냅입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61	213	170	62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 주	김정원 안젤라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김명은 안젤라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 애찬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최은미, 김진미, 윤지선
차 주	장보혜, 장유정, 김수연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01	64명	360달러	1,100달러
고영방, 김대연, 이혁구 (총 3세대)			

#### 연중 제27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0월 8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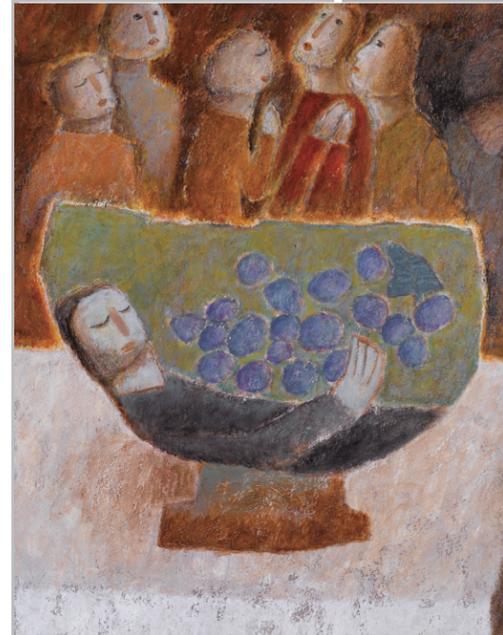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께서서는 당신 오른손으로 가꾸신 포도밭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시어 가려 심은 새싹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그림 묵상

#### 우리를 위해 도조(賭租)가 되어주신 주님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마태 21,43)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곧 건강, 시간, 재능까지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자신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포도원을 우리 차지로 주신 사랑, 곧 성체성사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몸이고 피입니다. 미사는 이 큰 사랑의 축제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1-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다.>



-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수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6-9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 주님 자비로 맺는 풍성한 포도 열매



오늘 제1독서에서 봉독한 이사야 예언서는 하느님을 포도밭 주인으로,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그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느님께서 기쁨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하나 두고 계신데, 그 밭을 일구고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탐을 세우고 포도 확을 만드신 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울타리를 걸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이사 5,1-7)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울부짖음과 불의함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그들의 불행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입니다.(이사 5,13) 실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집안은 폐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와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밭 임자이신 하느님께서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나십니다. 여기서 소작인들은 유다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임금은 자기 몫으로 소출, 곧 좋은 포도 열매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파견하신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들을 보자 매질하고, 죽이며 괴롭힙니다. 주인이 아무리 많은 종들을 보내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인의 소출을 주려 하기보다, 그들을 때리며 조롱하고, 죽입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들 정도라면 존중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결국, 주인은 소작인들을 처단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내버린 돌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소작인들, 곧 아들을 죽인 유다인들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게 될 다른 민족들에게 그 포도밭을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세워진 새로운 민족, 곧 포도밭을 넘겨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밭을 넘겨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 포도밭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포도밭을 잘 가꾸고 하느님께 그 소출을 바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로마 11,21)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하느님께서 유다인도, 우리도 당신의 자비로 다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옛 이스라엘도 포도밭을 빼앗겼지만 결국 되돌아와서 함께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로마 11,25-32)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운 바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좋은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 공동선(共同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선(善)을 바라며, 그 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이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가정, 중간 집단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입니다.”(베네딕도 16세 교황, 「진리 안의 사랑」 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동선을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완성을 보다 완전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사목헌장 26항)라고 정의합니다. 공동선은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사람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의 발전, 모든 이의 평화와 안전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같은 인간 권리의 수호도 필요합니다.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을 달성해야 할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선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사목헌장 74항) 실제로, 국가는 전 국민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민 사회의 공동선의 표현인 시민 사회의 결속, 일치, 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단체는 혼자서는 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온전한 발전에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서로 다른 이익들을 정의의 요구와 조화시켜야 하는 각별한 의무를 지닙니다. 집단의 특수한 이익과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권력이 맡은 과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입니다. 모든 국가와 위정자들이 공동선에 대한 자신들의 책무를 마음에 새겨 전 인류가족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공동선을 위한 우리 각자의 책임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것

내 것이 아니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욕심은  
내 것과 그분의 것을 구분 못하게 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 21:40)

